



‘운선도 평전’ 고미숙 지음

‘산중신곡’ ‘어부사시사’ 운선도가 남긴 풍요로운 시 세계

불우한 고산, 내면의 삶은 자유로웠다

운선도는 불우했다. 시대와 불우했고 세상과 불우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불우했다. 그러나 불우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오히려 운선도의 내면은 자유로웠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는 이중적 삶을 산 경계인이었다.

그에게는 시(시조)가 있었다. 그는 시를 가지고 놀았다. 자유자재로 다루고 매치고 끌어내고 흥을 불어넣었다. 많은 이에게 익숙한 ‘어부사시사’는 운선도의 천재성이 빛나는 걸작이다.

앞면에 안개 걷고 뒤산에 해 비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쌀물은 밀러가고 밀물이 밀려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어부사시사 중에서)

운선도는 서정적 언어와 리듬으로 자연에 생명 불어넣었다. 지극히 평이한 말도 그를 거치면 감칠맛 나는 언어로 바뀌었다. 그의 시조는 물 흐르듯 유연하고 활달했다.

그러나, 그것만을 고산의 진면목으로 생각한다면 명백한 착오다. 그의 생은, 세상과 불화했던 그의 삶은, ‘빛나는 시세계’를 보기 좋게 배반한다. 그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다. 방랑하고 피장파장했으며 수많은 이들과 척을 쳤다.

“운선도는 해남과 보길도에서 화려한 부를 누리고 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풀리지 않았다. 대부분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만족하기 마련인데도 그는 끊임없이 중앙정계에 뜻을 두었다.”

이번에 ‘운선도 평전’을 출간한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는 운선도의 삶과 시조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삶은 삶이

고 시조는 시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운선도에게 삶과 글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나 마찬가지였다. 3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그는 조선 중기의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 있었고 정적들과 수시로 대립했다. 그의 성정은 결코 타협을 허락하지 않았다. 격정적 기질은 외딴곳으로 처달아 30대에 벌써 7년간이나 유배생활을 했다.

이 같은 양가적인 면모가 고산이라는 한 인물에 수렴되기에는 이질적으로 보인다. 강인한 외적 이미지와 내면의 투명함 감수성. 그러나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는가. 외부라는 세상을 향한 엄격한 투지가 있었으므로 내면에선 유연한 리듬과 고아한 언어가 짝뜨지 않았을까.

고미숙 씨는 “운선도가 남긴 ‘산중신곡’과 ‘어부사시사’는 고전시가사, 아니 한글문학사의 보배 중의 보배다. 두 작품만으로도 그의 생애는

충분히 빛나고, 해남과 보길도는 탐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의 삶은 충분히 한 편의 드라마가 될 만큼 ‘양면성’을 극적으로 연출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분명 그의 시대는 불우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삶은 파멸했고 격화된 당쟁으로 조정은 잠시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보길도의 제왕’이었고 동시에 정치적 이단이었다.

평전이 한 사람의 인생 역정을 통해 특정 시대를 읽어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 이 책은 운선도의 삶과 문학을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그가 살았던 시대와 21세기를 사는 지금의 시대가 특별히 다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한겨레출판·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북우당은 효종이 사부였던 고산에게 하사한 건물로, 원래 화성에 있었으나 1668년 고산이 이 건물을 해남으로 옮겼다.(왼쪽) 북우당의 환판은 옥동 이사의 글로, 동국지체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공간’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흥하는 모든 것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

구승희 지음

집을 짓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의한다. 혹자는 건축을 인생이나 사랑에 비유하기도 하고 예술에 비유하기도 한다. 더러는 협소한 산을 오르는 일에 비유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여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공간을 반영하고 창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개봉했던 ‘건축학개론’은 한국 멜로 영화 역대 흥행 1위를 차지했던 작품이다. 주인공 승민과 서연이 함께 집을 지으면서 기억의 조각을 맞추고 현재의 감성을 쌓아간다는 모티프를 형상화했다. 추억의 편린과 현재의 격정을 집짓기와 접목시켜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완성했다.



건축가 구승희의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은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공간을 토대로 일상의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탐색한다. 또한 서연의 집 설계 과정에서 겪었던 뒷이야기와 이용주 감독이 영화에서 담고 싶었던 공간에 대한 관점을 잔잔하게 풀어놓고 있다.

저자가 동업자인 건축가들을 바라보는 인식도 흥미롭다. 전문가가 아닌 개인의 기억 속에 내재하는 공간에 대한 단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건축가도 공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맺는다. 즉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흥하는 모든 것은 공간이라는 기억의 저장소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북하우스·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만델라 한평생을 고스란히 드러낸 자화상

‘나 자신과의 대화’

넬슨 만델라 지음

“감옥에서 심히 걱정했던 것 하나는 내가 나도 모르게 바깥세상에 투신한 허상, 내가 성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며 ‘성인은 계속 노력하는 죄인’이라는 세속의 정의를 따르려도 아니다.”

만델라가 쓴 ‘나 자신과의 대화’에는 그의 맨얼굴이 드러난다. 가식은 없다. 스스로를 높이거나 추앙의 대상으로 신격화하지도 않는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 범부(凡夫)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공적 페르소나 뒤에 숨어 있는 가장 사적인 면모도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책은 만델라의 연대기를 바탕으로 그가 명상하고



반추한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줄기로 구성돼 있다. 1부 목가, 2부 드라마, 3부 서사시, 4부 희비극으로 명명된 주제에는 투사와 대통령이라는 세간의 찬사에 가려진 인간 본래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그는 지도자의 사생활을 보고 싶은 대중의 욕구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27년의 수감 생활에서 쓴 편지, 동지인 아메드 카트라다와 나는 인터뷰와 녹취 자료,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썼던 편지와 일기, 대통령 재직 시 주고받은 서한과 연설문은 씨줄과 날줄로 엮여 감동적인 자서전으로 형상화된다.

〈주말에이치코리아·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구려인의 삶 그린 ‘고분벽화’는 역사 있는 통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여행’

전호태 지음

고구려인들은 언제, 어떻게 고분벽화를 그렸을까? 첨단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고구려 벽화가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고구려인들이 벽과 천장을 캔버스 삼아 그렸던 벽화는 그 자체로 훌륭한 회화작품이자 중요한 사소통 수단이었다. 후대 사람들은 고분벽화를 통해 당시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 모습을 예견한다.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에 매진해온 울산대학교 전호태 교수가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여행’을 출간했다. 저자는 고분벽화가 한국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세계유산임에도 감사대묘의 현무도나 무용총의 사냥도



같은 몇몇 작품에 국한된 사실에 안타까워한다.

그가 파악한 고분벽화는 고구려의 역사적 배경과 고대문화의 정수를 집약한 문화이자 고구려인의 종교관과 세계관이 투영된 ‘결정’이다. 예술인과 전문가들에게는

역사적 상상력, 문화·예술적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문화유산인데도 고분벽화는 더러 포스터 재료나 책 표지 재료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중국과 북한에 위치해 있어 기본적인 공유도 어렵고 보존상태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분벽화를 보존,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푸른역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동운동과 함께 해 온 민주주의

‘세계노동운동사’

김금수 지음

“역사에 길을 묻는다.”

‘세계노동운동사’(전 3권)는 평생을 한국 노동운동과 함께 해 온 김금수 씨가 지난 10여년간 현장의 노동운동가들과 함께 진행해 온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한 토론과 연구 결과를 엮은 책이다.

책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든 물론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의 주요 흐름을 역사적 맥락에서 개괄하고 있다. 그 안에서 마르크스, 엥겔스, 흡스봄 등을 거



치고, 정체와 패배의 국면에 접어든 한국과 세계의 노동운동 상황을 되짚어본다.

저자는 “노동자계급이 전개한 활동과 투쟁의 굴곡, 많은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통해 더없이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노동운동 없이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또 노동운동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촉구한다.

〈후미너스·1,3권 3만원·2권 2만5000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독도·위안부... 이슈를 묻고 본심을 듣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문정인·서승원 지음

늘 우리에게 부정의 아이콘이자 자랑이야 할 톨로델인 ‘일본의 오늘에서 한국의 내일’을 읽는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일본의 겉모습 아래 감춰진 깊은 속내를 들춰내는 대담집이다.

저자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와 서승원 고려대 일본과 교수는 이노구치 다카시 도쿄대 명예교수, 후니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 등 일본의 지성이자 최고 전략가 14명의 눈을 통해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심



층적으로 바라본다. 인터뷰이들의 책과 논문을 살살이 탐구한 저자들의 내공을 엿볼 수 있다. 저자들은 대담한 질문들을 통해 독도와 종군위안부, 센카쿠열도와 북방영토, 대북정책과 한·미·일 관계, 동아시아 공동체구상 등의 이슈를 묻고 본심을 들여다 본다. 또 냉정한 시선을 통해 장차 한국을 움직일 젊은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삼성경제연구소·2만5000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신간

▲어제는 버리고 가라=이 책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작고 사소한 인식의 전환이 얼마나 큰 가능성과 행복을 맛보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이단아 영웅으로, 신체 장애자가 위대한 학자로, 불량학생이 천재 과학자로 탈바꿈한 일화들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각종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것을 강조한다.

〈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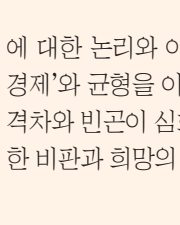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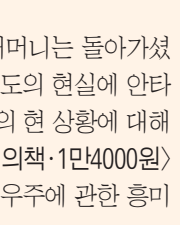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방치돼 왔던 윤치호의 일기를 다시 정리해 출간한 책이다. 윤치호는 조선 최고의 원로로, 60년동안 자신의 일상생활과 공인으로서의 활동, 국내·외 정세에 대한 견해와 전망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식민지 치하의 한 지식인이 어떻게 진일의 길로 들어서는지 보여주고 있다.

〈산치림·3만6000원〉

▲빌랄의 거짓말=역사적 격동 속에서도 꽃처럼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이자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애를 그렸다. 소설의 주인공 빌랄은 북인도 작은 마을에 사는 열세 살 소년이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암 투병 말기다. 분열 직전에 놓인 인도의 현실에 안타까워하는 아버지를 위해 빌랄은 아버지에게 조국의 현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한다.

〈내인생의책·1만4000원〉

▲십대, 별과 우주를 사색해야 하는 이유=별과 우주에 관한 흥미



로운 역사와 과학적 이야기들을 통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를 생각해보고 나를 찾는 과학책이다. 책에서는 즐겁고 ‘우주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주관이란 ‘나는 이 우주를 어떻게 사색하고, 우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나와 우주의 관계, 우주 속의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10대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문의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더숲·1만6000원〉

▲그곳과 사귀다=차를 마시기 위해 찾는 카페,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거리는 버스 정류장, 목격없이 걷는 산책로, 가볍게 끼니를 때우려고 들르는 편의점, 술 한잔 생각날 때 향하는 포장마차, 헌책방...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에세이스트 이지혜의 소소한 일상 여행책이다. ‘마음을 주고 받는 곳’ ‘감정을 만나는 곳’ ‘한 번 더 돌아보는 곳’ ‘순간을 마주하는 곳’ 4부에 걸쳐 총 50개의 공간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소담출판사·1만2000원〉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이 책은 일본의 석학 도쿄대 진노 나오히코 교수의 나눔과 중용에 대한 논리와 이론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나눔의 경제’가 ‘시장 경제’와 균형을 이룰 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격차와 빈곤이 심화하며 절망의 사회로 변해가는 일본에 대한 방황한 비판과 희망의 섬을 향한 따뜻한 바람도 함께 담았다.

〈푸른지식·1만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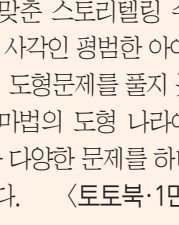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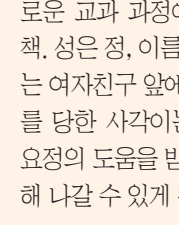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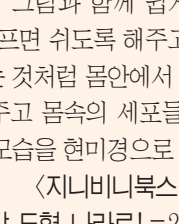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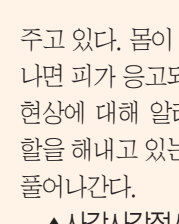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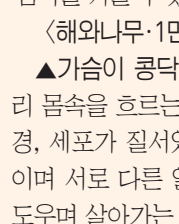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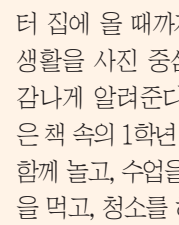


▲엄마와 함께 쓱쓱 명화 그리기=나도 위대한 화가! = ‘명화를 따라 그리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탄생한 어린이 미술 워크북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반 고흐·피카소 등 열두명의 위대한 예술가들과 이들의 창작 기법을 안내하면서 아이들을 그림의 세계로 이끈다.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활동을 소개해 그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어린이, 그리

는 방법을 몰라 헤매는 어린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아트북스·2만원〉

▲나도 키 크고 싶어=엄마가 아닌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실용그림책이다. 키 때문에 받는 아이의 스트레스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다. 이야기 속 영두는 키가 작아 늘 고민한다. 아빠와 함께 나갔다가 펠리, 코끼리, 고양이, 닭, 기린, 원숭이들이 알려주는 키 크는 체조를 알게 된다. 〈책찌·1만5000원〉

▲1학년이 되었어요=새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학교생활 꼼꼼 안내서. 학교에 갈 때부



터 집에 올 때까지의 학교 생활을 사진 중심으로 실감나게 알려준다. 아이들은 책 속의 1학년 아이들과 함께 놀고, 수업을 하고, 밥을 먹고, 청소를 하며 실천 감각을 키울 수 있다.

〈해와나무·1만2000원〉

▲가슴이 콩닥콩닥=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구, 신경, 세포가 질서있게 움직이며 서로 다른 일을 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몸이 아프면 쉬도록 해주고, 상처가 나면 피가 응고되는 것처럼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알려주고 몸속의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풀어간다. 〈지니비북스·9800원〉

▲사각사각정사각 도형 나라로! =2013년 새로운 교과 과정에 맞춘 스토리텔링 수학 그림책. 삼은 정, 이틀은 사각인 평범한 아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도형문제를 풀지 못해 창피를 당한 사각이는 마법의 도형 나라에서 도형 요정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토트북·1만3000원〉

어린이 책꽂이